2강 트라우마를 다시 기억하기 혹은 정신분석학

1. 트라우마

◇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, 결정적인 심리적 외상이 히스테리 현상의 원인이라고 해서 외상이 '발병인자'로서 증상을 일으키고, 이후에는 이 증상만이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아니다. 오히려 심리적 외상(좀 더 정확하게 말해 외상에 대한 기억)이 이물질의 형태로 존재하고, 이 이물질은 한번 침투하면 멈추지 않고 오랫동안 원동력으로서 작용한다. 매우 흥미로운 증상을 통해 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해 내었는데, 이는 우리들의 증상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실제적으로 중요한 도움을 준다. 왜냐하면 놀랍게도 우리는 '환자가 히스테리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다시 완전하게 기억해 내고 동시에 그 기억에 얽혀 있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하면, 그리고 환자가 그 사건에 대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진술하고 감정들을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, 개개의 히스테리 증상은 곧 소멸되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'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. 이 치료법에는 회상에 감정이 개입되지 않으면 대체로 전혀 효과가 없다.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심리적 과정이 가능한 한 생생하게 재생되어야만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. 즉 '발생 당시의 상태status nascendi'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'언어로 표현되어야만'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 자극 증상인 경련, 신경통, 환각 등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처음 발생 당시의 상태가 재생될 때, 그때처럼 강렬하게 다시 한 번 그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 후에는 영원히 소멸된다.『히스테리연구』「히스테리 현상의 심리 기제에 대하여: 예비적 보고서」(1893)

-히스테리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프로이트(Sigmund Freud, 1856-1939)는 기억과 관련된 이상 역설을 발견하게 된다. 그것은 기억하기 싫은 기억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.

-프로이트는 선택한 방법은 자유연상이나 최면의 기법으로 트라우마를 기억해내게 한다.

2. 알라야식을 끊기 혹은 불교

◇ 의식은 모든 종자들을 포함한다. 의식의 이러저런 변형들은 종자들의 상호 영향으로 진행되며, 그 때문에 이러저러한 분별들이 발생한다.『유식30송(Triṃśikā)』18

-불교는 고통의 치료학이라고 할 수 있다.

-불교에 따르면 고통을 낳는 것이 집착이고, 따라서 집착이 해소하면 고통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.

-집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집착과 대상에 대한 집착이다. 이것을 보통 아집(我執, ātma-grāha)이나 법집(法執, dharma-grāha)이라고 부른다.

-바수반두(Vasubandhu, 世親, 320?-400?)는 집착을 제거하려는 직접적인 노력을 통해서, 인간의 마음, 집착, 그리고 고통 사이에 벌어지는 복잡한 논리를 체계화한다. 이것이 바로 유식불교다.

-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유식불교에서도 '기억'을 중시한다. 그것이 바로 알라야식(ālayavijñana)이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3. 알라야식의 의미

-알라야식은 '저장'을 의미하는 '알라야(ālaya)'라는 말과 '의식'을 의미하는 '비쥬나나(vijñana)'로 구성되어 있다.

-히말라야(himalaya)는 눈[雪]을 의미하는 '힘(him)'과 '저장'을 의미하는 '알라야(ālaya)'가 결합되어 있는데, 그래서 히말라야는 흔히 설장산(雪藏山)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다.

-중국에서는 알라야식을 '저장 의식'이란 의미로 '장식(藏識)'이라고 번역했다.

-유식 불교에 따르면 행동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업(業, karma)의 결과가 씨앗처럼 알라야식에 저장된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